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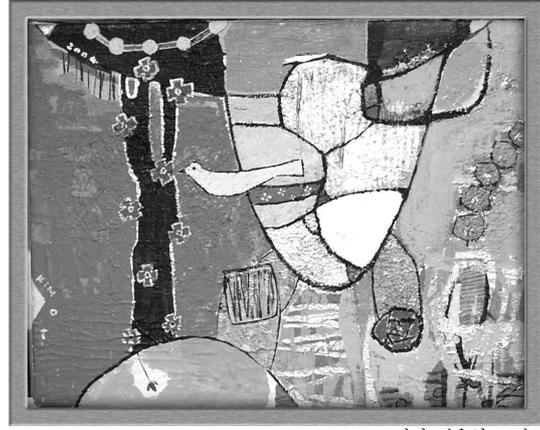
| 사진명상 |



사진 : 민병길

보디사트바

Bodhisattva 2009년 가을, 제2권 제3호, 통권 84호



예인 김옥희 그림

Contents

- 여는 글 _ 3 9월에 띄우는 편지 | 능행
경전 이야기 _ 4 등불과 지팡이 | 남정
법문 _ 6 인생의 종착역에서 보내는 마지막 여정 | 능행
의학상식 _ 10 암이란 | 김진목
HTP _ 14 HTP와 자기 수용 | 박진희
탐방 _ 17 대만 자제공덕회 비구니 스님과의 대화 | 편집부
임상의 글 _ 21 이별이 준 선물 | 이명순
옹달샘 _ 24 명상만화 <연재 3> · 마음밭에 무얼 심지? | 최영순
_ 26 영화 이야기 · 사랑과 죽음에 대하여 —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 | 이영문
건강생활 _ 29 피로여 가라!
마하보디교육원 소식 _ 31
정토 ● 관자재 한마당
_ 36 주인공이여! | 혜자
_ 37 공양간과 병동 어르신들과의 밀담 | 대인행
_ 39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 이정찬
- 광고모집 안내_23
좋은 인연들의 이야기_40 (법화경 천일기도 동참자 명단_42 / 자제병원 건립기금 후원자 명단_44)
자제병원 건립 불사 안내_45 정토마을 안내_46 후원가족이 되어주세요!_47
알려드립니다_48

보디사트바: 2009년 가을, 제2권 제3호, 통권 84호, 2009년 9월 1일 발행 | 등록 울산 바01004(2008. 4. 11.) | 발행처 정토사관자재회 | 발행 · 편집인 능행 | 기획위원 강옥희 황희순 최유 | 편집위원 김경오 김성규 박정선 상진 장용렬 | 편집장 수필 | 주소 정토마을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17 전화 043)298-2258, 마하보디교육원 울산 울주군 상북면 양동리 138-1 전화 052)264-1007 · 0117 팩스 052)264-0209 | 제작 아띠울 | 비매품

9 월 에 띄 우 는 편 지

고현산 마루 흰구름이 선들바람에 잘도 흘러갑니다.

교육 불사에 올여름을 땀땀 시주하고 두 달만에 문밖을 나서니, 들
판 벼들이 영글어가고 있습니다. ‘참 빠르다, 세월.’ 혼잣말을 건네고
받으며 논둑길을 걸어갑니다.

시절 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낮과 밤은 여여하기 그지없는데, 오
고기는 계절을 아쉬워하며 가슴 절이는 중생의 심사에 허허로운 바
람이 성큼 지나갑니다. 목숨을 다해 목 놓아 우는 매미소리가 숲속
가득합니다. 매미소리와 함께 교육을 함께 했던 도반들과 교육생들
의 모습을 떠올려봅니다.

후원 가족 여러분들과 그리고 교육에 함께 마음 모아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어 깊이깊이 그 노고와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 동안 가보지
못한 정토마을 가족들도 생각나고, 언제나 올까 기다리는 도반의 눈길도 가슴
싸하게 느껴집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보다 좋지 못한 일이 더 많고, 편안함보다 고단함이 더
많고, 즐거운 일보다 괴로운 일이 더 많고, 하고 싶은 일보다 하기 싫은 일
더 많이 하고, 행복보다 고통이 더 많고,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더 많은 것이
보편적인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원가족 여러분께서는 어떠하십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순간에 죽고, 시절
은 한시도 쉬지 않고 흐르는데 어이 육신인들 늘상 온전할 수 있을까요. 하지
만 어떤 형태의 삶을 경험하든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더 긍정적으로
갖는 여유로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삶이든 가치 있고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음과 몸의 상태를 건강하고 청정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수
행적 삶을 통해 자기 돌봄을 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토를 사랑하는 이들과 세상 모든 이들이 사대 강건하고 육근 청정하기를
기도합니다. 卍

—언양 간월산 마하보디교육원에서 능행 정례

등불과 지팡이

남정 | 29기 호스피스

기나긴 장마가 물러서나 했더니 그 뒤를 이어 무더위가 밤잠을 설치게 하는 나날입니다. 제가 있는 강원도엔 요즘 달콤한 옥수수가 한창입니다. 그 달콤함을 알면서도 선풍기가 가지 않는 걸 보고 도반스님이 의아해 하지만 제겐 남모르는 큰 아픔(?)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한창 새 이가 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금니 하나가 흔들리던 어느 날 옥수수를 아주 맛있게 먹다 뭔가 이상해 입안을 확인하던 순간 허전함이……. 그 후 옥수수는 제게 무서운 존재가 되었고, 아직도 어금니의 행방은 묘연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제가 얼마 전 정토마을로 실습을 갔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 무서운(?) 옥수수를 2개나 연거푸 먹었습니다. 실습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 일과를 마칠 때쯤 찾아오는 허기와 뿌듯함이 두려움을 없애준 듯 싶습니다.

올여름 제겐 참으로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호스피스 교육이었습니다. 제 삶을 최상으로 변화시켜준 선택이 출가였다면, 영원한 자유와 행복으로 변화시켜준 선택이 호스피스 교육이었습니다. 죽음이 두렵다는 제 말에 도반스님이 적극 권해준 교육이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가장 큰 결실은 잘 죽는 방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이기엔 받아들여야 하지만 죽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지요. 그래서 전 영원한 자유와 행복한 삶의 여정에 죽음의 길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죽음이란 길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도 있을 것이고, 험난한 언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길에 날 이끌어줄 이가 함께한다면



그는 등불과 같고 지팡이와 같을 것입니다. 이 죽음에 나의 든든한 벗이 되어줄 이는 다름 아닌 ‘부처님’이십니다.

『관무량수경』엔 “念佛修行者 人中芬陀利華(염불수행자 인증분다리화) 觀音勢至 爲其勝友(관음세지 위기승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염불수행자는 연꽃 중에서도 가장 청정하고 향기로운 꽃인 분다리화이며, 이러한 이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가장 훌륭한 벗으로 삼는다.”라는 말입니다.

많이 알고 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세월 앞에서는 그 모두가 힘을 잃고 맙니다. 부처님께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늘 부처님을 생각하며, 부처님의 행을 하고자 발원하며, 염불 정진하는 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이도 아닌 관음세지 양대보살이 그러한 이와 벗하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과 관음세지라는 든든한 벗이 내 삶의 여정을 함께하고 죽음의 길도 함께한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발목을 잡겠습니까?! 우리의 무의식과 업(業)은 사진기와 같아 어떠한 것을 한번 촬영해 놓으면 그 것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며, 결국은 내 삶을 결정짓고 내 세세생생의 삶을 이끌어 가는 업(業)이 되고 지도가 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과 평화로운 죽음과 아름다운 내생(來生)을 원(願)하는 이라면 내일이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무의식과 업이라는 사진기에 부처님의 명호를 촬영하십시오. 오늘, 내일 쉽없이 촬영한 부처님의 명호는 내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줄 것이며, 임종시엔 아미타 부처님이 여러 보살님을 대동하시고 나를 영접하러 오실 것이고, 아름다운 다음 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비롭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깊고 가장 행복스럽고 가장 위대한 이름,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명호(名號)입니다. 부처님의 명호는 無生清淨 寶珠名號(무생청정 보주명호) 즉 생사를 초월한 보배 구슬 같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얻은 가장 큰 결실이며, 행복한 삶과 잘 죽는 방법은 부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자유를 향한 나의 기나긴 삶의 여정에 참된 벗을 원하는 이라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여기 내가 있는 이곳에서 부처님의 명호를 내 가슴에 담아 보십시오.

참된 행복이 가득한 삶이 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코스모스의 몸짓과 높다란 푸른 하늘이 곧 가을이 음을 던지시 귀뜸해 주는 듯합니다. 卍

인생의 종착역에서 보내는 마지막 여정



능행 | 마하보디교육원장

인생의 여정 중,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생로병사 중 우리는 어디쯤 머물고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1. 호스피스(Hospice)의 정의

호스피스는 돌봄의 공동체로서 정의된다. 즉 죽음에 대해 고유한 통찰력을 갖도록 하여, 암을 비롯한 치유할 수 없는 각종 질병을 가진 임종환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며 평온하게 임종을 맞도록 돌보는 것이다.

호스피스는 더 이상 치유할 수 없어 죽음 앞에 선 환자와 그 가족에게 사랑과 자비심으로 조건 없는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환자가 삶의 남은 시간 동안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종교적으로 총체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복지사, 종교인, 사회사업가, 봉사자 등이 한 팀을 이루어서 전인적으로 지지하며 나아가 사별가족의 고통과 슬픔까지도 함께 돌보는 것이 호스피스다.

2. 호스피스의 불교적 정의

호스피스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기독교적 개념이다. 그래서 불교에는 호스피스에 대한 개념과 실제 행해진 예가 없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불교 경전을 보면 부처님 당시부

터 이미 호스피스의 정의에 맞는 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호스피스를 ‘마라나짜띠 수행(죽어감을 알아차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마라나짜띠 수행’이란 타인의 죽어감을 돌보면서 죽음에 대해 알아차리고, 그를 통해 내 죽음을 관조해 볼 수 있는 수행이다.

‘마라나짜띠 수행’을 하게 되면 많은 자각과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우선 첫 번째로 보리심을 들 수 있다.

이 수행을 하면서 수행자들은 생사해탈을 위한 보리심을 내게 되는데, 보리원[사홍서원]과 보리행[경험적 수행], 보리도[팔정도]의 바른 길을 통하여 생사 없는 열반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즉 ‘마라나짜띠 수행’을 통해 사홍서원의 첫 번째인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의 마음이 간절히 솟어나게 된다.

그래서 환자들을 돌보는 행위에 수행으로 다가서게 되고, 내 마음속에 진솔하고 조건 없는 자비와 사랑이 넘쳐나게 된다. 그리고 그 자비와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게 된다. 아울러 죽음을 돌보는 이들의 삶과 지혜와 공덕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영적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질병과 죽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부러 병원에 가거나 일부러 마음을 내서 환자들을 접하고 그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경험하였다면, 이 수행을 통하면 자연스럽게 병원에 가거나 있는 곳에서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고 그 모습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내가 이런 처지, 이런 고통에 처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들은 저렇게 떠나는데 나는 어떻게 떠나게 될까.’라는 물음들이 화두로 잡힌다. 그래서 일상의 화두가 되어 열심히 정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타인을 돌보는 모습으로 점차 변하게 된다.

세 번째는 육체의 무너짐을 보면서 덧없고, 무상함을 경험하게 된다.

환자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소유욕이 무너진다.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또한 탐진치가 떨어져나간다. 이토록 짧고 덧없는 무상함 속에서 ‘무엇 때문에, 누구와 싸우고 미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고 상처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끝없이 일어나는 욕망의 모습을 봄으로써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이 일어나고, 그 자비심은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준다.

이처럼 ‘마라나짜띠 수행’은 부처님 안에서 바르게 정진하고, 지혜와 공덕이 자라나 행복한 삶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한다.

3. 불교적 관점에서의 역사적 변화

부처님의 말씀, 초기경전, 인도의 부처님 성지를 돌아보면 ‘열반당’이라 이름 붙여진 곳을 많이 볼 수 있다. 그곳에서는 병원과 다름없는 시설을 갖추고 수행하던 분들이 병들고 죽어갈

때 돌봐주고, 죽은 뒤에는 시신을 치우던 일을 하면서 자비심을 베풀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옛 조사들께서도 중생들을 돌보고 치유했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 역사의 질곡 속에서 불교의 본래 모습이 많이 상실되었고, 호스피스와 같은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전의 말씀과 부처님께서 실제 행하셨던 그 모습,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것이 여래를 돌보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21세기에는 불교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불법 안에 흘러오고 있었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그 정신을 다시 일깨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이 모두 마음을 모아서 본래의 모습을 되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자를 돌보는 것이 여래를 돌보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한, 중생을 향한 자비심도 기억될 것이다!

4. 인생의 종착역에서 보이는 모습들

우리 삶의 여정을 정리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때가 바로 임종의 순간이다. 이때에는 어떤 거짓도 존재할 수가 없다. 한평생 살아온 내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임종 때인 것이다. 그래서 백이면 백, 천이면 천, 죽어가는 이들의 모습은 삶의 모습이 달랐듯이 그 숫자만큼이나 다양하고 모두 다르다.

죽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맞이하는 죽음과 끌려가는 죽음이 그것이다. 나라면 어떤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죽어가는 내 모습은 어떠할까. 죽어가는 내 곁에는 누가 있을까. 나의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은 누구일까를 생각해본다면, 죽음을 생각 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는구나.'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게 된다. '언젠가 나도 죽겠지.'가 아니라 '정말 나도 죽는 것이다.'란 자각을 통해서 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라 당당히 맞이하는 죽음이 될 것이다.

생각 속에서만 죽음을 안다면 죽는 그 순간에 우린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 육체에 투자하고 보살피는 행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는 무정하리만치 사정없다. 그 허망함 앞에서 우린 이 육체에 속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한다.

죽어가는 과정에서는 고통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육체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다. 병이 얼마나 깊어질지, 병에 의해 내 육체가 어떻게 변해갈지, 내 모습이 어떻게 스러질지에 대한 커다란 두려움이 있다.

다음으로는 긴 시간 아파할 때 내 곁에서 나를 한결같이 돌봐줄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짜증 내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돌봐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자식들을 고생시킬 것에 대한 부담과 긴 병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이 커다란 두려움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깊은 외로움이 커다란 두려움으로 작용하게 된다. 곁에 아무도 없이 혼자서 죽음

의 순간을 맞이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신적인 혼란을 잘 이해한다면 죽어가는 이의 곁에 있어만 주어도 얼마나 커다란 위안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사회적 상실감을 들 수 있다. 요즘 40~50대 암환자가 많아지는데, 이들은 사회적 역할, 특히 남성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이 갑자기 사라지는 상황에서 매우 심한 고립감과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자식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것에서도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극심한 상실감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은 육체의 고통에 못지않게 환자를 힘들게 하는 요인인 것이다.

5. 병을 받아들이는 단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병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면 대개 5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병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일이 닥칠 때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즉 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처음은 부정의 단계이다. 오진일 거란 생각에 많은 병원을 전전하면서 확인에 확인을 거듭한다. 그래서 '최소한 세 군데의 종합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서 같은 진단이 나와야 확실하다.'란 말을 하면서 긴 시간을 진단받는 데 허비하기까지 한다. 두 번째는 분노의 단계이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죽어야 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 그 분노는 가족에게 원망의 화살로 날아가기도 한다. 즉 '너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런 병에 걸렸어.'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이 가족을 원망하는 마음으로까지 치달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울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모든 것이 귀찮고 의미가 없으며, 아무도 보고 싶지 않게 된다. 네 번째는 타협하게 된다. 종교든 산천이든 조상이든 매달릴 수 있는 모든 것에 매달리면서 해야 할 일을 할 때까지만 살려달라고 타협하게 된다. 최소한 죽음을 준비할 때까지 만이라도 살려달라고 타협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다섯 번째는 수용의 단계이다. 점차 육신이 무너지면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 이때에는 수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생명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 죽으라면 죽지.' 하는 마음으로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나라면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삶은 '공수래공수거'라고 해서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죽는 그 순간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죽는 그 순간의 '마음상태'이다. 그 마음상태는 다음 생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마음은 평생의 삶을 통한 내면의 힘으로 결정될 것이다. 삶과 죽음은 한 모습이기에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잘 죽기 위해 노력한다면 삶은 저절로 잘 살아질 것이다. 卍

-채록: 희유

암이란

김진목 | 파라다이스병원장

암! 이 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말인가. 이 무서운 병으로 일가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를 잃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사망자 4명 중 1명이 암으로 생명을 잃고 있다고 한다.

인간의 행복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먼저 질병 없는 생활, 즉 건강의 유지가 그 첫째 조건이 된다.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 중에도 암만큼 낮기 어렵고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질병도 없다. 암이라는 진단만 받아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체념, 비관하는가 하면 신체 어딘가에 조금만 이상을 느껴도 혹시 암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떨게 된다.

의학용어로 악성종양 혹은 악성신생물을 '암'이라고 부른다. 한자로는 '瘤'이라고 쓰며 그 어원은 바위처럼 단단하다는 뜻의 '巖'이다. 즉 한자의 어원으로 보면 암은 바윗돌처럼 단단한 덩어리를 의미한다. 영어로는 'cancer'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로 게(crab)를 뜻하는 카르키노스(karkinos)에서 유래한다. 게처럼 단단하고 신체의 어느 부위에나 달라붙기 때문에, 또는 게처럼 자꾸 옆으로 번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5천 년 전 이집트의 미이라에서 골종양이 발견될 정도로 암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며, 약 3천5백 년 전의 고대의학서에도 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 역사상 위대한 인물 중에 나폴레옹은 위암으로 세인트헬레나 섬에서 52세를 일기로 외롭게 죽었고, 『삼국지』의 조조는 뇌종양으로 고생하다 생을 마감했다.

인체에 발생한 악성종양을 암이라고 명명한 사람은 의학의 시조인 히포크라테스로 2천4백 년 전의 일이다.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고 인류 최대의 적의 하나가 되어버린 암은 이처럼 인류 탄생 이전의 까마득한 태고 시절부터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암은 돌연변이를 일으킨 비정상세포가 무한정 증식하고 다른 곳으로 전이하는 특징을 지닌 250여 종의 악성종양에 공통적으로 붙이는 명칭이다. 영어로 암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cancer 이외에 neoplasm과 tumor가 있다. neoplasm(신생물)은 새로운 성장물을 의미하며 정상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증식하는 세포들을 말하고, tumor는 종양을 뜻한다. 그러나

신생물과 종양은 양성과 악성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이므로 이들 단어 앞에 반드시 양성 또는 악성이라는 말을 붙여 구별해 주어야 한다. 즉 양성신생물, 양성종양이라고 하면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양성암을 말하고, 악성신생물과 악성종양은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의 암을 뜻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cancer는 통상 악성암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총 암환자 수는 약 3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매년 약 11만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 약 5만 명이 매년 암으로 사망한다. 암환자 1명당 4명의 직계가족이 있다고 볼 때 매년 11만 명에 이르는 새로운 암환자가 발생하므로, 이들 암환자와 그들 가족을 포함한 약 50만 명이 매년 새로이 암으로 고통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미 암으로 진단받아 앓고 있는 환자와 그에 딸린 가족을 합하면 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난다.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4명 중 1명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느 집이나 사랑하는 가족 중의 1명은 암에 걸릴 수 있다. 충격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암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예고 없이 슬그머니 찾아온다. 암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일단 증상을 나타내는 상태가 되면 그것으로 인해 죽게 되는 확률이 다른 질병보다 매우 높기 때문이다. 즉 암은 환자의 생명을 빼앗을 때까지 집요하게 공격하여 육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황폐하게 만든다. 환자의 간병 때문에 가족들의 개인생활은 있을 수 없고 단란했던 가정의 행복까지 송두리째 빼앗아가기도 한다. 암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환자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에게 큰 고통과 불행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기도 한다.

요즘 인터넷을 통해 최신 의학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의사나 환자에게 모두 유익한 일이다. 질병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은 환자는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환자 자신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에 확신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따르게 된다. 그러나 의료정보의 과잉 확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사의 진료행위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잘못된 확신을 줄 수 있다.

즉 어떤 약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환자 스스로 처방을 내려 복용하거나 민간요법으로 암을 고쳤다 하여 그대로 따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병명이 암인 이상 어느 한 가지 약이나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다. 물론 그렇게 하여 암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똑같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더구나 모든 약품마다 다소간의 부작용이 따른다. 또 암환자처럼 신체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그 부작용이 더욱 심각해져 치명적일 수도 있다. 의사의 임상판단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명을 위협받는 암환자의 진료에는 노련한 의사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는 장기간의 연구와 노력, 집중적인 사고, 그리고 많은 경험 속에서 지속적으로 획득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각각의 환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치료법을 적용

하고 각 환자의 상태를 세밀히 살펴가면서 필요하다면 그 치료법을 변경하기도 한다. 그것이 최선의 진료이다.

최선의 진료를 위해서는 정보 외에 의사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는 이유는 환자들이 의사보다 비전문가의 의견을 따르고 검증되지 않은 요법에 의존함으로써 치료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아 왔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중환자들이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생명을 위협받는 암환자는 특히 그러하다. 환자들은 양질의 진료와 완치에 대한 기대를 안고 종합병원을 찾지만, 처음의 기대와 달리 실망감으로 종합병원을 나서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치료하는 암환자 중에는 현재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 중인 환자도 있고 항암치료가 끝난 환자도 있다. 이들 대부분은 수술과 항암치료가 끝난 후 일정한 간격으로 내원토록 하여 재발유무에 대한 검사만 할 뿐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하소연한다. 환자가 불안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 조기 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이 수술을 받는다고 완치되는 것도 아니고 항암치료를 계획대로 모두 받았다고 재발이 방지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암 치료법은 암의 진행 정도, 암의 전이 정도, 암의 진행 속도,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 등을 고려하고 치료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도 비교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개월의 생명 연장을 위해 힘든 수술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완치를 기대하며 참고 견디었던 온갖 어려운 치료들의 결과가 보잘것없을 때 환자는 절망한다. 이 경우 의사로서는 최선일 수 있으나 환자에게는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진행암의 경우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암의 진행을 늦추어 생존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적의 치료 방침에 의해 가능한 모든 치료법을 동원하여 적용해야 한다. 최적의 치료 방침은 의사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데 경험 많은 의사의 지식에 의존하는 게 바람직하다. 동시에 치료의 많은 부분을 환자 자신이 결정해야 하므로 환자는 암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또 알아야만 의사와 상의해서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일이고, 둘째는 해선 안 될 것을 하는 일이며, 셋째는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안 하는 일이다. 여기서의 암환자들에게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선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인들은 암환자들에게 모르는 것을 새로 가르쳐주고, 산만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 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옳게 고쳐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제대로' 알게 된 환자들이 치료 프로그램에 주역이 되어 '능동적 치유 행위자'의 역할을 통해 환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최대한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치료 과정에 있어서 매 단계마다 치료 프로그램의 주역이 되어야 하며, 적어도 치료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는 능동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라는 것이다.

셋째로는 자신의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만성 난치병들은 생활 습관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서는 불과 1초 동안에 1000만 개의 세포가 죽고 또 그만큼 수의 세포가 새로 탄생하는 정도로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을 토대로 발생한 병의 방향을 바꾸려면 새로운 방향의 생활 습관으로 전환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네 번째는 마음과 몸의 상관관계를 조명하고 마음이 몸의 병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마음의 훈련을 통한 질병의 극복 요령을 탐구하여야 한다. 사람의 몸이 마음먹은 대로 변화될 수 있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 몸을 긍정적으로 변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으로 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건강의 필수 요건 중에는 사회적 건강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나의 개인 생명은 '날 생명'이요, 나 이외의 다른 생명들은 '보 생명'이고, 이 모든 생명은 통틀어 '온 생명'이 되는데, 나의 날 생명의 건강은 온 생명과의 상관관계에서 영향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나의 인생관, 가치관, 대인관계 등에 대한 새로운 각도에서의 재조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영적 차원의 건강 추구가 내 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치유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영적인 면이 반드시 종교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회복과 삶에 대한 근본적이면서도 차별한 반응 같은 것이다. 또한 우리 내면에 있는 신성함을 발견하는 것이며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항상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타적 마음이 없이는 영적 건강을 기대할 수 없으며 영적 건강이 없이는 참된 '온 건강'을 기대할 수 없는 법이다. 수천 명의 암을 극복한 사람들이 이것이야말로 '치유로 가는 길의 정점'에 있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卍

HTP와 자기 수용

박진희 | 임상심리전문가, 한스카운셀링센터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HTP 검사를 한번쯤 들어보고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HTP는 House-Tree-Persona test로 집 그림, 나무 그림, 사람 그림을 한 장씩 그려서 심리상태와 기본적인 성격을 평가할 수 있는 임상심리검사의 한 종류이다. HTP는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어디서든 실시할 수 있는 편리성과 내담자의 학력이나 연령에 무관하게 익숙하고 쉬운 검사이기에 다양한 상담 장면이나 병원 장면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검사이다. 처음 HTP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이 간단한 검사로 내담자의 성격이나 정서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HTP를 수행하는 내담자 역시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성격에 대해 상담자가 탐정처럼 잘 알 거라고 짐작하고 긴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간이 거듭할수록 느끼는 것은 HTP를 통해 심리평가를 하는 것보다 HTP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위로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심리평가 도구이기보다는 상담과 치유의 도구, 정확히 말해 나와 상대를 이해하는 만남의 도구라는 것이다.

50대 고운 외모의 한 내담자가 자신이 그린 HTP를 가져와서 스스로 그림을 해석한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사람 그림에서 손을 감추고 있으니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지 못하고, 큰 눈을 그렸으니 사람들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잘 알아요. 아무리 숨기



려고 해도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집의 지붕에 기왓장을 촘촘히 그린 것을 보세요. 강박적이잖아요. 이렇게 강박적으로 나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숨기려고 하니 진정한 만남이 되겠어요. 내가 늘 고민하던 것이 이거예요.” 그는 무척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표정이었다.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어떻게 그런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져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어릴 때 부터 부모는 늘바빴고, 자신에게 집안일을 많이 시켰는데 칭찬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무엇 하나 야무지게 하지 못한다는 말로 야단을 많이 맞으며 자랐고, 친구 하나 없어 자신의 속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형제들이 많았지만 형제들은 오히려 자신이 돌봐야 할 자식들 같았고, 그렇게 자라면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심정을 알아주거나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자신의 보잘것없는 과거를 누구라도 알까봐 두려워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했고, 귀하게 자란 듯 보이고 싶어서 남편에게도 조심을 했다고 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야 난 비로소 그를 이해하게 되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항상 불안하고 긴장되며, 무언가 신뢰하지 못할 것 같았던 심정을, 자신의 과거를 들키고 싶지 않았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의 그림 속에서 손을 뒤로 하고 눈을 크게 뜨고 기왓장을 촘촘히 그리게 했던 힘이 사실은 그분이 현실 속에서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추스르게 해왔던 힘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도 들고, 삶의 여유가 생겨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자기를 방어해야 할 위협을 덜 느끼게 되면서 이런 측면을 바꾸고 싶게 된 것이다. 그런데 과거의 삶의 방식이 그림 속에서 배어 나오자 만족스럽지 않고 예전의 상처를 다시 보는 것 같아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힘겹게 삶의 터널을 뚫고 나온 자기에겐 합당하지 않은 태도인 것 같다. 자기를 방어하려는 힘이 없었다면 힘겨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오히려 자기 방어의 힘을 돌아보며 힘든 세상에서, 누구 하나 신뢰할 수 없고 도와주지 않은 세상에서 정말 애썼다는 찬사를 해줘야 합당하지 않을까? 그 역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다시금 이야기를 시작했다. 다시 시작된 이야기 속에서는 혼자서 잘 해보려고 노력한 일들을 돌아보며 그래도 자신이 참 대견하다는 속내를 비쳤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증상이란 어떻게 보면 고통 중에 있는 개인이 스스로를 살리려는 행동에서 만들어낸 방어적인 행동 패턴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개인의 삶 속에서

그것의 의미, 내담자가 버티게 해왔던 의미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내담자들의 단점도 사실 알고 보면 지금까지 내담자를 살려온 측면이 있어 그것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증상이나 단점의 의미를 무시하고 이를 없애야 하는 문제 덩어리로만 취급한다면 어떻게 될까? 비바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 해주었던 두꺼운 외투를 이제는 지지분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면 벗겨내려 한다면 비바람 속에서 내담자가 어떻게 될까? 아마도 내담자의 자기 존중감이나 자기 가치감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의미를 잃고 허탈감과 무기력감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HTP를 통해 보이는 내담자의 경향에 대해 그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의 역할을 돌아보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를 갖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필요치 않아 변화되기를 바랄 때도 감사히 떠나보내는 심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그래야 새로운 삶의 방식과도 충돌치 않고 물 흐르듯 새 물살을 탈 수 있을 듯하다. HTP를 해석하는 상담자는 굳이 옥에 티를 찾으려 하지 말고, 진주를 만들어내려면 조개에 상처를 입혀야 되듯 HTP를 통해 상처를 찾아내고, 그 상처의 의미를 내담자와 진정한 만남을 통해 스스로 인식하고 수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옥에 티가 아닌 정말 가려내야 할 쪽정이라면 분명 그것을 감별해내는 전문가적인 식별력도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HTP는 분명 평가도구이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표현이고 이것이 나와 타인과의 소통의 기본이란 걸 고려한다면 자기 성찰이나 상담자와의 진정한 만남도 분명히 가능하다. 안정적이고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자기와의 만남은 진정한 자기 수용으로 이어지게 함으로 깊은 치유의 힘을 지닐 수 있게 된다. 여러 상담자들에게 HTP를 평가적인 도구로 사용하기보다는 이 무한하고 깊은 가치를 살려 활용해 보기를 권한다. 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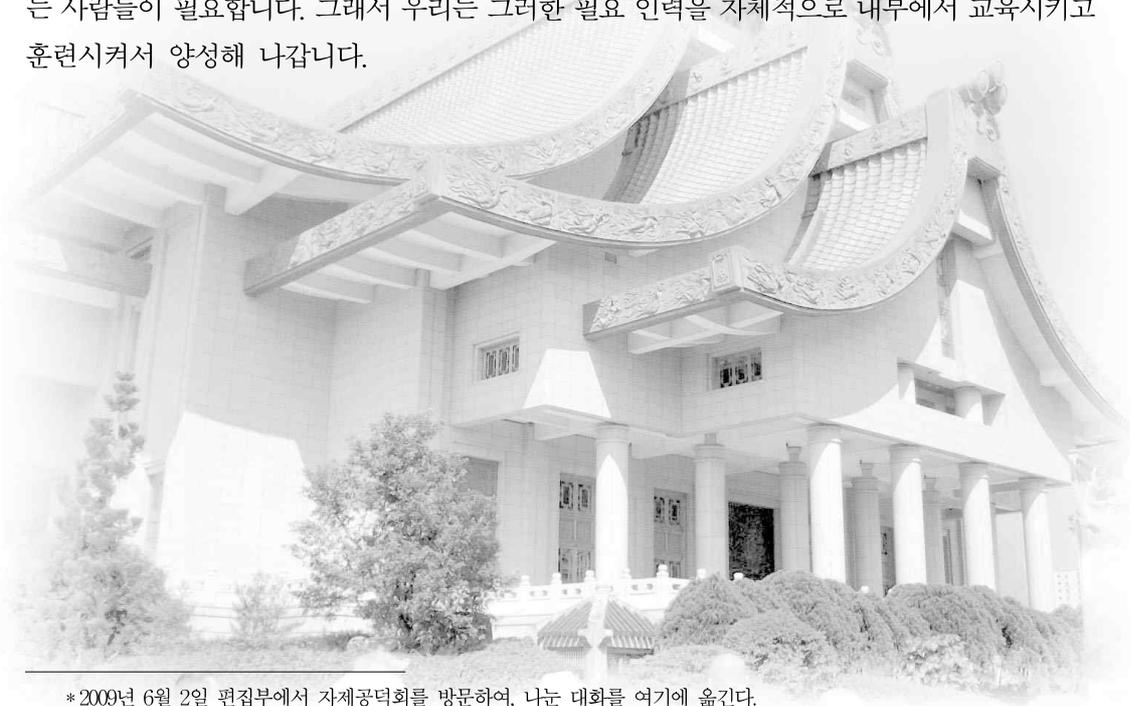
대만 자제공덕회 비구니 스님과의 대화

편집부

Q 자제공덕회가 그 동안 더 많이 발전하고 성장하여 정말 부럽습니다.

A 그러한 성장은 자제공덕회의 모든 분들의 공입니다. 그리고 상인(증엄 스님)께서 항상 자비심을 갖고 많은 분들을 도와주셨으니까,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다시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는, 이를테면 불교의 진정(참된 정진)효과라고 할까요? 그러한 선행이 돌고 돌아서 봉사활동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에는 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병들을 고쳐주는 의술을 베풀고, 그 병자들을 돌봐주는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실현입니다. 현재 많은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돌봐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필요 인력을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양성해 나갑니다.



* 2009년 6월 2일 편집부에서 자제공덕회를 방문하여, 나눈 대화를 여기에 옮긴다.



자제공덕회 스님(좌)과 차 향장, 능행 스님(우)

Q 인력을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교육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A 우리는 중생을 보살피는 인력을 자체에서 조달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자체대학이 그것인데요, 자체대학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선교육, 인문교육, 생명교육입니다.

생명교육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자체대학의 전신은 자체의과대학이었습니다. 증엄 스님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자체병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료기관과 자체간호전문학교를 만들었는데, 많은 환자를 수용해야 하는 데에 부족함을 느끼며, 필요한 인재를 직접 조달하고자 지어진 병원이 자체의과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1986년도에 자체의과대학을 설립하였다가 2000년도에는 자체종합대학교로 바뀌었습니다. 대만의 교육부의 법령에 의하면, 세 개의 학부(대학)를 갖추어야 종합대학교의 설립요건이 되는데, 현재 자제공덕회대학교는 4개의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의과대학, 생명과학대학(유전공학대학), 교육방송대학, 인문사회대학이 그것입니다.

한국에도 자체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비구니 스님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니 몹시 반갑고 또 원장 스님(능행 스님)께서 자비심을 갖고 계시니까 부처님의 가피로 원만불사가 성취되리라 생각합니다. (합장)

Q 스님의 격려에 많은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합장). 대만의 자제공덕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시기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A 처음 이 일을 하려고 할 당시에 우리는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20년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하였기 때문에 돈을 모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만들어서 출판하고

책을 팔아서 돈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라면도 생산하고 소품도 만들고 하면서 우리가 자급자족하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주위의 시선도 좋아지고 해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Q 자제공덕회에서 생활의 지표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A 이곳의 생활은 옛날 당나라 때 백장청규(百丈淸規)의 생활과 같아요. 직접 초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서 팔고 돈을 벌어요. 마치 전쟁을 준비하듯이 식량과 물자를 준비하면서 생산하고, 그 물품들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합니다.



대안 자제병원 내 벽화



정사정사 방문기년

Q 자제공덕회의 스님들과 회원들의 활동을 보면서 그 정성스러움에 감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A 사람들은 출가한 사람이 어떻게 인간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고 말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의 오직 하나의 감정-사랑하는 것인 자비심-으로 베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비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는 행(行)을 어떻게 감내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살면서 받았던 감동을 다른 이에게 전해주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불심(佛心)을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올바른 사회활동을 하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부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만에는 자원봉사자만 3만여 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틈나는 대로 시간을 내서 봉사 활동을 합니다. 중엄 스님께서 자원봉사자에게 가르치실 때, 사심을 갖지 말고 봉사활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생활도 잘 영위해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자원봉사자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집에서는 또한 훌륭한 할머니, 훌륭한 엄마, 훌륭한 주부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오랫동안 해오니까 세상에는 정말 훌륭한 분들도 많고 착한 보살님도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Q 병원을 방문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의 옷과 직원들의 옷에 대한 의미가 특별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A 봉사자들의 옷에는 불화(佛畵)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푸른 옷을, 의사들은 흰 옷을 입습니다. 푸른색과 흰색은 각각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을 나타냅니다. (봉사자의 옷을 가리키며) 일을 할 때 저 옷을 입으면 보살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란색의 조끼는 스님들의 가사(袈裟)와 같아요.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활동하기 전에 이 옷을 입어요. 스님들이 가사(袈裟)를 입듯이 격식을 갖추어 입습니다. 그러면 마음과 정신도 저절로 경건해집니다. 마음가짐이 삼의(三衣)를 입는 출가자와 비슷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엄 스님의 원대한 꿈은 출가자 이외에도 모든 이들을 보살화하여 인간사회를 도우는 것입니다.

Q 이러한 봉사의 정신이 자제공덕회 자체 방송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A 68개 국가에 297개의 자체 봉사단체를 통하여 세계 모든 나라를 도와줌으로 전 세계의 인류를 구제한다는 원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희사(慈悲喜捨)입니다. 증엄 스님의 가장 큰 정신인 4대 업적은 '자선', '의료', '교육', '문화'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심 없이 큰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베푸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진정효과'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 열심히 정진하면 나중에 전 세계의 인류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Q 한국의 저희 정토사관자재회 공동체에서 '완화의료 전문 자제병원 건립불사'를 준비하면서 '자제공덕회'의 걸어오신 발자취를 거울삼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비심의 실천'이라는 말씀이 큰 의미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A 한국의 스님들도 훌륭히 이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마음을 내시고 거기에 매진하고 계시는 능행 원장 스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을 뵈면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군요. 증엄 스님의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용기도 믿음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불가능이나 무능은 없어요. 하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오직 두려울 뿐.

Never lose courage. Never lose faith. Nothing in this world is impossible, when you are determined.

지혜로 인생의 참뜻을 찾고, 끈기로 한국자제병원의 불사를 꾸려 가시길 기원합니다. 卍



이별이 준 선물

이명순 | 사별가족

시동생의 49재가 끝났다. 언양 관자재법당에서 능행 원장스님의 인도로 치러진 마지막 재는 영가의 천도뿐만 아니라 이생에 남은 부모, 형제, 친지들의 영혼에도 날개를 돋게하는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자제병원! 나는 한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시댁에서는 4시간 가까이 걸리는 먼 거리다. 내 부모형제들에게는 이름도 풍경도 낯선 절이었다. 만이가 가잔다고 뜻을 모아 주었지만 선망조상님들의 천도까지 일가의 동참으로 병행하게 되면서 내 마음에는 만만찮은 부담이 안겨왔다. 기와지붕에 단청 곱게 올린 우리나라 전통 사찰 건물이 아닌 서양식 건물에, 비구니 스님께서 봉행하는 재를 일가친척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이 제일 컸었다.

부질없는 걱정들을 떠나보낸 어제, 오랜만에 절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었다. 오늘만큼은 전장에서 돌아온 병사가 총을 내려놓듯 종가의 맘떠느리라는 나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싶다. 슬픈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오롯하게 떠올라 나를 괴롭히는 지나간 한순간이 없다면, 하지만 그 한 장면이 나를 컴퓨터 자판 앞으로 끌어다 앉혀놓고 어서 보디사트바의 문을 두드리라고 재촉한다.

조카의 전화를 받고 서울 병원에 도착하니 시동생은 온갖 기기들에게 몸을 내어주고 마지막 숨을 모으고 있었다. 정토마을로 데리고 올 생각에 중환자실로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중환자실에서 할 처치는 다 해놓았다. 심폐소생술만 안 했을 뿐이란다. 그렇게 10여분이 지나고 시동생은 이승의 끈을 놓았다. 기계들이 거두어지고 영혼이 떠난 빈 몸뚱아리만이 남겨진 순간을 맞았다. 기기가 점령했던 자리마다 핏자국이다. 속에서 비명이 올랐다. 명색이 최상급병원 침대에서 생을 마친 한 몸뚱이가 저렇게 슬픈 모습일 줄이야. 시동생 손을 잡으니 온기가 남았다. 아린 가슴을 안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 지장보살님 원력으로 극락왕생하시라며 지장보살 명호를 외었다.

시동생이 산소호흡기를 쫓고 연명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시간이었다. “형수님 보고 가려고 5시간이라는 힘든 시간을 이어 온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는 화가 났다. 그때는 공부 덜 마친 제 지식 모르는 척할까봐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 줄 알았다. ‘저 잘 되게 해보겠다는 형수 말 좀 들어주지, 새끼 걱정은 되어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달고 기다리고 있었나? 병원에만 있으면 살 줄 알았나? 정토마을 갔으면 이렇게 갑자기, 고통스럽고 외롭게 가지는 않아도 될 것을.’ 삼키는 울음 사이로 질은 회한이 밀고 올라왔다.

재를 올리던 49일 동안 나에게 돌아온 답은 그것이 아니었다. 나를 괴롭히는 슬픈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는 자제병원건립 불사였다. 지나간 어느 해 만난 능행 스님의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의 마지막 책장을 덮으면서 정토마을 후원자가 되었다.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친정어머님 생각에 책을 읽는 내내 많이도 울었다. 해산달을 코앞에 둔 외동딸과 미성인 자식들을 줄줄이 두고 생을 놓아야 했기에 눈을 감을 수 없었던 내 어머니. 곁에서 임종을 지키면서 “만딸이 잘해 나가겠노라.”는 말 한마디만 해드렸다면 편안히 눈감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멍에처럼 가슴에 걸려 있다. 그때 정토마을 같은 시설이 흔히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간암 말기라는 고통스러운 시간도 생명의 부질없음을 알아가는 공부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남겨두고 갈 자식들 걱정 다 놓고 편안히 눈감으셨을 것이다.

친정어머니로 인해 인연을 맺었지만 그림으로만 만나던 정토마을을 실제로 발딛게 해준 시동생. 항암 치료를 끝내고 “형수, 나는 거기가 너무 심심해서 집으로 갈거요.” 하던 말이 귀에 쟁쟁하다. 시동생은 화려하고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스님들, 봉사하시는 거사님, 보살님들이 아무리 많이 계셔도 아늑한 정토마을은 시동생에게 심심한 공간이었나보다.

자제병원 조감도를 본다. 여기였다면 심심하단 말은 안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고향 가까운 곳에 아름답고 최신식 설비를 갖춘 자제병원이 진작에 완공되었다면 마지막 가는 길, 설사 곁을 지키는 가족 없어도 스님들 보살님들 기도 속에 행복하게 떠났을 것이다. 생전에는 단 한순간도 형수를 따라준 적 없지만, 만며느리로서의 소원인 선망조상 천도 제대로 하게 해준 사람. 지장보살 화신이신 능행 스님 품에 가족들을 안기게 한 그 사람이 주고 간 숙제가 무겁다.

책상 위에 놓인 관자재회 후원회 가입신청서를 보니 이십 년 전 타종교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천 원의 후원회원 되면서 느꼈던 무주상보시의 기쁨이 새삼스럽다. 단칸방에 월세를 사는 처지였지만 달마다 날아오는 후원회보는 나를 마음부자로 만들어주었다. 내 돈 천 원이 이렇게

큰일을 해내는구나 생각하니 곤궁한 내 생활이 비참하지 않았다. 후원회원이 된다는 건 천 원으로 만 원의 삶을 살 수 있는 복권에 당첨되는 것임을 그때 알았다. 지금은 액수도 늘고 후원처도 늘었지만 내 살림은 천 원의 후원자였던 그 시절보다 훨씬 풍족하다. 사람들은 말한다. 곁에 있는 부모형제들에게도 잘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후원하느냐고. 한 달을 살면서 일이만 원에 삶이 바뀔 수 있는 부모형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들을 먼저 도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제병원 후원회 가입이라는 복권을 사보라고 권하고 싶다. 만 원의 복권을 사서 백억에 당첨된다는 것은 기적이다. 자제병원 건립공사는 백억 불사라는 말을 들었다.

지옥의 문 앞에 선 중생들 구제해 보겠다고 스스로 고단함을 안고 사시는 능행 스님을 뵈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얼마나 고단하실까. 서투른 내 글이 자제병원건립 대 불사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발원할 뿐이다. 卍

광고모집안내

본지 보디사트바는 1년에 4번 발간되는 발행지로써 5,000여 정식 후원가족에게 고정적으로 배부되며 회원의 증가로 발행부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지의 독자들은 전국 각지의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자신의 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로써 광고 효과 또한 뜨거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지의 광고는 독자들의 마음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광고 게재에 관심 있으신 기관, 단체, 개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광고 게재 안내

- 지면 : 표 2, 3, 4면 및 기타
- 색상 : 4도 컬러, 또는 흑백

■ 광고 게재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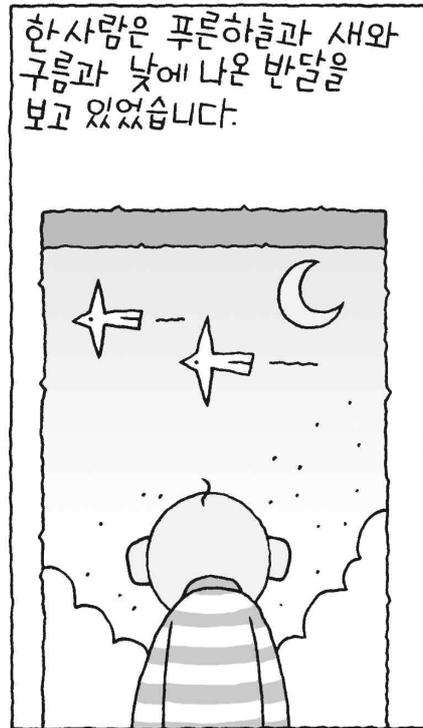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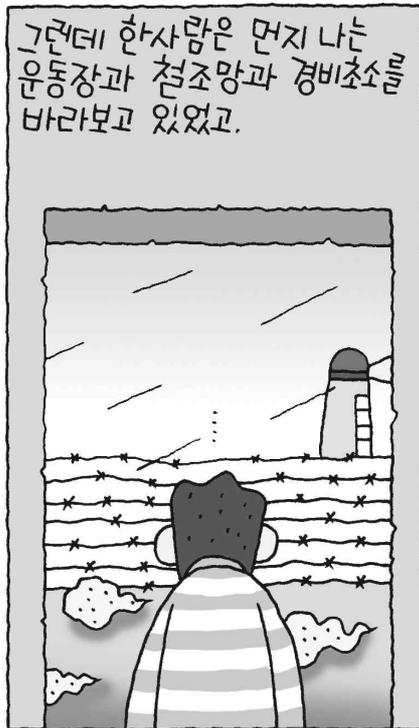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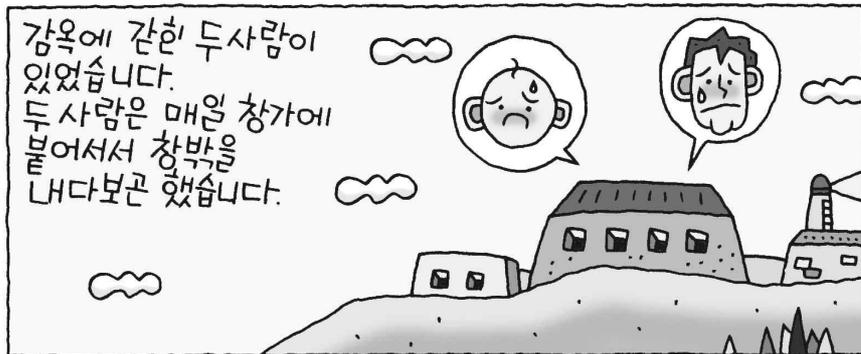
- 이메일 : supil2008@naver.com
- 전화 : 052)264-0117(아띠울 출판사) 010-3080-9922(담당자 수필)

[명상만화 <연재 · 3>]

마음밭에 무얼 심지?

최영순 | 만화가

|| 감옥 속의 두 사람 ||



마음의 밭에
다양한
생각의 씨앗을
심어두어야
한다.
그러면
다양한
생각이
자라나고
마음의 밭이
풍요로워진다.

『젓소가 돼지보다 인기가 좋은 이유』



하찮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의 좋은 일이라면 가짜의 먹이지 말 것.
 파랑색의 돼지는 작고 빨간 돼지는 크고 두 마리 모두는 우유와 치즈의 맛과 치즈의 맛을 좋아한다.
 이 책의 주인공이 돼지이다.

명상만화 | 최영순 글 · 그림 | 『마음밭에 무얼 심지?』 (해토, 2003)에서 부분 옮김.

최영순은 강릉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서 소설을 공부했다. 철들기 전에는 학교 대신 강릉 남대천 하구의 익새밭에 누워 있거나 어두컴컴한 싸구려 극장에서 하루를 보내곤 했고, 철든 후엔 '자비원'이라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길 잃은 아이들과 함께 텃밭하며 한 시절을 보냈다. 1999년부터 본격적인 만화 작업을 시작했다. <불교신문> <스포츠신문> <굿데이>를 비롯한 여러 신문과 <현대모터> 등 사보에 만화를 연재했다.



【영화 이야기】

사랑과 죽음에 대하여

—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

이영문 | 아주대학교 정신과 교수

잃어버림이 가져오는 그리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날이 가고 있습니다. 벚꽃 구경은 하셨는지요? 평소 저는 이 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피었다가 열흘도 안 지나 시들어 버리고, 일본의 잔재라는 이념까지 겹쳐 저에게는 더욱 혐오스런 대상이었지요. 그러나 이번에 독일영화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Cherry Blossoms)’을 보게 되면서 벚꽃의 화려함이 인생의 덧없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벚꽃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굳이 혐오할 대상이 아님은 분명해졌습니다. 원래 제목처럼 이 영화에는 일본의 벚꽃이 화려하게 피어있습니다. 그 벚꽃을 배경으로 사랑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교차되어 그려집니다. 과연 우리들의 사랑 후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경제난 시대라서 그런지 빚잔치(?)라는 말들이 우스개처럼 들려오지만, 여전히 그리움과 아픔, 후회 등이 남을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진행형이라는 대전제를 하면서 영화를 봅니다.

독일의 조그만 마을에 노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남편 루디는 평생을 쓰레기분리 회사에서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 똑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일을 40년 넘게 반복하고 있지요. 매일 아침 그는 평생의 반려자인 아내 트루디가 만들어준 샌드위치 한쪽과 사과 하나를 받아들고 ‘사과 하나면 평생 의사를 볼 일이 없어.’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러나 루디는 이미 암선고를 받았고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아내 트루디는 차마 루디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다림질을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죽기 전, 베를린에 살고 있는 큰아들 내외와 딸이 사는 곳을 방문하자고 트루디는 제안하고 마지막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 도중 철부지 남편의 천진함과 자식들의 무심함에 속을 꿇인 채 트루디는 갑자기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트루디의 죽음 이후 루디는 평생 동안 아내가 일본 후지산에 가보고 싶었다는 것과 하얀 화장

을 한 채 혼자 영혼과의 춤을 추는 부토무용수가 되고 싶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일본에는 막내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행 가방 안에 평소 트루디가 입었던 옷가지들을 챙겼고, 그 중에는 일본 기모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본다면, 아마도 루디는 평생 처음 여행 가방을 혼자 힘으로 꾸려 보았을 겁니다. 낮은 땅, 낮은 사람들



영화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 중에서

과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언어 앞에 루디는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럴수록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가고, 트루디의 옷을 입고 벚꽃이 화려하게 피고 지는 공원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루디를 우리는 동정하며 보게 됩니다. 우연히 공원 한 곳에서 죽은 엄마의 영혼과 부토춤을 추는 류(yu)라는 홈리스 소녀를 알게 되고 이들은 함께 후지산으로 출발합니다. 며칠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후지산을 기다리던 어느 날,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다 깨어난 루디는 기모노를 입고 부토화장을 한 뒤, 호수가로 나가 아내의 영혼과 함께 부토춤을 추다가 쓰러집니다. 행복한 죽음이라고 관객들은 느끼겠지만, 영화 속 자녀들은 그의 죽음을 이상하게만 생각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각자의 세상에서 살다가 죽을 뿐입니다.

이 영화에서 죽음은 더 이상 호들갑을 떠는 주제가 아닙니다. 숭고함은 더욱 아니며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는다는 것은 자연적인 일상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아내의 죽음 이후 루디가 보게 된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것들을 우리는 여전히 많이 알지 못합니다. 가진 것이 많다는 것, 누리는 것이 많다는 것은 우리를 언제나 진실로부터 눈멀게 합니다. 함께 있는 가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이 영화에는 두 명의 다른 여성이 등장합니다. 영화 전반부에 딸의 여자친구는 한 번의 만남으로도 트루디가 부토무용수가 되고 싶었음을 압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일본 여성 류는 루디의 후회와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본능적으로 알아챈다. 두 사람 모두 상실을 경험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에게 소중한 무엇인가를 잃어본 사람들은 그 잃어버림이 가져오는 그리움을 기억합니다. 외로움으로 대체될 수 없는 그 무엇. 그리움은 결코 외로움 따위로 대체될 수 없는 기억 저편에 놓인 본질입니다. 기억이 사랑보다 아픈 이유이기도 하지요.

루디와 트루디의 삶을 통해 이 영화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권합니다. 화창한 봄날의 아침을 맞으며 과연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저 봄날이 가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ㅍ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공인지 『함께 걸음』에 실린 글을 저자와 협의하여 가져옴.)

‘피로여! 가라’

피곤할 때 피로 푸는 법

○고질병이 있을 때
소화기-하체 자주 아플 땐 무릎 아래 삼
족리(足三里)혈 ‘꼭꼭’



위경련 위염 등 소화기계 질환, 다리 무릎
허리 등 하체피로, 그 밖의 각종 만성병이 있
을 때 기본 혈이 바로 ‘족삼리(足三里)’ 혈이
다. 한방에서 이 혈은 무병장수의 혈로도 알
려져 있다. 무릎관절 앞 쪽 접시모양의 뼈(슬
개골)가 있다. 이 뼈의 바로 바깥쪽 아래에 보
면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다. 그곳에서
바깥쪽 복사뼈로 이어지는 선을 손가락 3마
디쯤 내려가면 이 혈이 있다.

○다리와 허리가 차가울 때
복사뼈 안쪽 삼음교(三陰交)혈, 부인과
질환에도 효험



복사뼈 안쪽에서 뼈를 따라 위로 손가락 3
마디만큼 올라가면 그 뼈의 뒤쪽에 ‘삼음교
(三陰交)’ 혈이 있다. 이 혈은 한방에서 허약
하고 위가 약한 사람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뜸을 놓는 경혈로도 알려져 있다. ‘족삼리’ 혈
과 함께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경혈이기 때문
에 수시로 눌러주면 좋다. 특히 다리와 허리
가 차갑고 통증이 있을 때 이 혈을 눌러주면
좋다. 이 밖에도 부인과 질환이나 남성생식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

○손발이 차가울 때

심장기능 관련된 소부(少府)혈, 눌러주면
땀나면서 '후끈'



주먹을 살짝 쥐었을 때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의 끝이 닿는 지점의 중간에 '소부(少府)'혈이 있다. 이 혈은 심장 기능에 관련된 곳으로 손발이 차가울 때 특히 효과가 있다. 지압을 하면 달아오르면서 땀이 난다. 또 두 뇌와도 연결된 혈이기 때문에 신경질적이거나 몹시 긴장했을 때도 좋다. 이밖에도 뇌중풍(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반신마비 치료에도 자주 쓰인다.

○피곤할 때

'에너지 우물' 의미 견정(肩井)혈, 침침한
눈-오십견에 효과

먼저 젖꼭지의 중앙에서 어깨 뒤쪽으로 지압하는 손가락을 이동한다. 그리고 뒷목에 이르렀을 때 이동을 멈춘다. 그곳이 '견정(肩井)'혈이다. 이 혈은 '몸속의 에너지가 용솟음치는 우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피로로 인한 어깨 결림과 통증, 오십견 외에 목이 붓고 돌리기 힘들 때도 이 혈을 누르면 좋다.



또 눈이 피곤하거나 극심한 피로로 온몸에 힘이 없을 때도 효과가 있다.

○감기증상이 있을 때

목 뒤쪽 양옆 부분 풍지(風池)혈, 두통-
기침-고열 모두 호전



목 뒤쪽에 '승모근'이라는 2개의 굵은 근육이 양쪽으로 있다. 이를 타고 올라가다 머리카락이 나는 부분 바깥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통증이 느껴진다. 이곳이 바로 '풍지(風池)'혈이다. 감기에 걸려 머리가 아프거나 뒷목이 결릴 때, 열이 나고 기침이 너무 심할 때 등 대부분의 감기 증상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穴

“축하합니다”



여성불교 재가불교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불이회(회장 홍라희)가 2009년 7월 6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한 제24회 불이상(不二賞) 시상식에서 ‘실천분야’에 정토사 관자재회 이사장이며 마하보디교육원장이신 능행 스님께서 수상하셨습니다.

불이상은 한국불교계의 선구적 일꾼 육성과 발전 향상을 위해 불이회(회장 홍라희)에서 제정한 상으로서 24년의 역사를 가진 의미와 무게가 실린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행 스님은 수상소감에서 “죽음의 순간까지 빛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상을 바치며 승려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이라며 “건강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홍라희 회장을 비롯한 불이회 회원들과 백여 명이 넘는 사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불이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불이상에 저를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 불사로 일 속에 묻혀 있다가 수상 결정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출가한 승려로써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상은 저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까지도 저에게 빛이 되어주신 수많은 분들과, 병들고 가난하여 소외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신, 공동체 사부대중 모두의 노력이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0대 초반 생전 처음 기본 대학병원에서 사람들의 질퍽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세상을 떠나는 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도 암환자를 비롯한 불치병 환자들의 영적 돌봄과, 병원건립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제 마음 안에 그분들의 고통과 서러운 눈빛이 함께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여정에 동행하면서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고통과 괴로움을 보았고, 그 고통은 저로 하여금 보리심을 발현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1996년 폐암으로 돌아가신 비구 선객 스님의 유언이 고통과 죽음이 있는 곳에 내 인생이 닳을 내리도록, 그리고, 진정한 수행의 길을 찾아가도록 하는 원인이 되어주었습니다.

종교가 다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임종이 가까워지고 있는 스님 환자인데 보호자가 없으며 저에게 돌봄을 부탁해 왔습니다. 그곳에서 더운 여름날 땀과 눈물이 범벅되어 홀로 죽어가고 있는 선객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27년 동안 선방에서 정진하시다가 동안거에 독감이 걸려서 기침을 하는 줄 알고, 해제를 마치고 인근병원에 갔다가 다시 서울 병원에서 폐암 말기선고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임종 여정 5일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중에 “내가 십자가 아래서 죽어 갈 줄은 꿈속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생에는 의사가 되어 출가를 해서, 중생들을 치료하고 돌보겠다.” 는 말씀과 함께, 30대 중반밖에 안 된 나에게 ‘병원을 지어 스님들과 중생들의 마지막 죽음의 여정을 도와달라는 애절한 유언’ 을 4일간 계속하셨습니다.

내 승낙을 받고 떠나시기 위해 숨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유언이기에 힘들게 버티다가 결국 승낙했고, 스님은 죽어서라도 저를 돕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천막이라도 치고픈 마음으로 탁발의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쌀도 얻고 의약품도 얻고 돈도 달라며 손을 내밀 때, 내 개인의 안위를 위한 일은 아니지만 부끄러운 마음에, 주춤거릴 때도 많았고 빈손으로 돌아설 때 눈물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죽어가면서도 살고 싶어 하는 그들의 눈빛과,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은사 스님의 모습, 그리고, 비구 스님의 간곡하고 애절한 눈빛이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병고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이 한 생을 아낌없이 바쳐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겠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된 탁발은 지금의 정토마을, 그리고, 자제병원 건립과 함께 아직도 갈 길이 멍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극빈층인 차상위층 서민들을 중심으로, 가난하고 병들어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되는 사람들, 죽음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는 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불이상을 받는 이 단상에까지 왔습니다.

태국 북부에 가면, 비구 스님께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6백여 명의 에이즈환자와 천여 명이 넘는 어린이 에이즈환자들과 그 가족 들을 위한 시설과 에이즈 퇴치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불교인들은 입을 알아도 어디 편히 가서 암환자 재활뿐만 아니라 죽음을 준비할만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치병 중 특히 에이즈에 대한 예방과 돌봄에 대한 불교인들의 역할 또한 전무한 상태입니다.

불치병 예방사업과 함께 완화의료 전문병원을 건립하여 건강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공헌하는 자제공동체가 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공심으로 하라!” 하시는 은사 스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며, 이 상은 중생을 위해 마땅히 헌신하라는 뜻으로 여기며, 저희 공동체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비구니 스님들로 구성된 자제공동체의 이념은 이렇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다.

모든 생명은 고귀하고 존엄하다.

모든 생명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정신과 신념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출가사문으로서 상구보리하고 하화중생하겠습니다.

불이회 홍라희 회장님을 비롯하여, 불이회 회원님들과 위원회의 수상 결정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 있는 모든 것에 사랑과 평화와 행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소중한 인연 감사합니다.

— 능행 합장

제29차 불교전문 호스피스 교육과 운문사 승가대학 불교전문 호스피스 교육을 마치고.....

때 이른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버린 유난히 덥지 않은 2009년 기축년 여름, 마하보디교육원 도량에서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7박 8일 동안 스님과 재가자 45명이 제29차 불교전문 호스피스 교육과,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6박 7일 동안 청도 호거산 운문사 비구니 스님 55분을 교육생으로 한 특별 호스피스 교육이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도량의 사부대중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답고 소중한 부처님 이야기 한편을 또 만들어 내었습니다.



제29차
호스피스 교육을 마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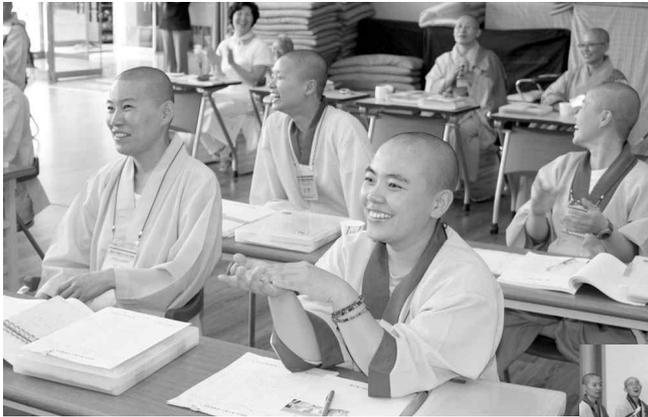


운문사 승가대학
호스피스 교육을 마치고



늦더위와 뻘뻘한 시간표를 따라 조용히 숨고르기를 하며 강의에 열중하였던 교육생 스님들과 재가자들은, 다소 생소하였을 호스피스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기보다 '보살처럼 행동하고 부처처럼 미소짓기'라고 어느 책 한권에 쓰인 글처럼, 스스로를 갈고 닦아 참다운 실천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호스피스 봉사자의 진정한 모습임을 느꼈을 것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이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큰 길을 어머니와 같은 보디사트바의 약손이 되시기를 마하보디교육원 사부대중이 지심으로 합장하여 기원합니다. 卍



교육 증 ↑
운문사 승가대학 교육을 마치고 →
수련식 ↓



주인공이여!

해 자
(도선사 주지)

인연 있는 생명의 주인공이여!
우러러 하늘 뜻 가슴속 깊이 새기며
삶의 마당 굽이마다
해보다 달보다 밝은 미소 그리며
사랑과 순결로 새 인연을 맺어
어떠한 폭풍노도도 헤치며
사랑의 꽃수레를 당기고 밀어서
이 하늘 이 땅을 축복의 노래로 꽃피우는
인내와 슬기를 갖게 하소서

인연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여!
신의를 지키며 화합하는 친구이게 하소서
양보하며 헌신하는 덕행을 배우게 하소서
사랑과 예절이 새싹으로 돋게 하소서
은혜에 감사드리는 기쁨 속에 기도하게 하소서

인연 있는 평화의 주인공이여!
부모님과 어른들에게는 효순한 부부로
자녀에게는 인자한 아버지로
형제 친지 이웃에게는 화목하며
성실하고 검소한 생활 속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가정의 행복으로 사회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고
인륜도덕에 새로운 빛을 더하는
명예로운 주인공이 되소서

공양간과 병동 어르신들과의 밀담

대인행
(정토마을 공양주)

“우야꼬! 어르신, 조금밖에 못 드셨네요. 무엇을 해드리면 조금이라도 더 드실 수 있겠어예? 어르신, 드셔야 합니다. 드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 좀 해보이쇼.”

온통 고통을 안고 있는 암말기 환자들은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한다. 그래서 나는 병실에 들러 환자보다 더 낮은 곳, 그리고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손을 잡고 토닥거리며 은밀한 밀담을 나누듯 조용조용하게 말을 건넨다. 서로의 손이 어색함을 넘어 따듯한 체온을 느낄 때, 어린 시절의 이야기며 과거에 좋았던 일들 회상하면 감정이 일렁거리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무르익을 때쯤이면 음식 이야기가 술술 나온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어떤 음식에 양념은 무엇을 넣을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차려야 한다. 나는 이렇게 환자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이야기 속 주제를 안고 병실을 나와 간호사 허락 아래 후원으로 들어선다. 환자들은 임종을 앞두고 어머니가 차려주던 밥상을 그리워한다. 후원은 지금부터 바빠지기 시작한다. 오늘 밥은 찰밥, 국은 깔끔한 미역국, 자비살 보살님 생선, 미실 성오스님 비빔국수, 타실 거사님 다진 멸치젓에 청양고추 다진 것, 불살 보살님 방아장떡에 방아콩나물찜, 밥술에 넣어 쥔 호박잎쌈, 들기름 듬뿍 넣고 조물조물 무친 비듬나물,



넷가에서 잡은 피래미 튀김……. 이렇게 소박한 요리를 하는 조리대 앞에 서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백년을 다 써먹지 못하는 육신을 가지고 천년 만년 살 것같이 앞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왔을 환자들을 생각하면 슬픔이 밀려온다.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보살피 주이소!’ 분주한 시간을 지나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공양시간 밥상을 올리니 간암말기 거사님 이미 눈으로 맛을 보시고, 폐암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보살님은 이미 당신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은 듯 미소가 번진다. 자비실 보살님은 “오늘 내 생일?” 하며 기뻐하시고, 성오스님은 비빔국수의 삼색고명이 이쁘다 칭찬하시며 맛있게 드신다.

나는 봉사의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정토마을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은 곳이다. 오는 사람과 가는 사람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있기를 발원하며 나는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 정토마을의 밥상을 지키고 있다. 卍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봉사를 마치고 길을 떠나며

이정찬

(정토마을 봉사자)



스님의 염불소리와 맑은 목탁소리에 어둠 속의 정토 마을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누가 말했던가요.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서 우리는 더 값진 많은 것을 얻는다고. 생로병사! 이 길은 그 누구도 부정하거나 거스를 수 없는 길입니다. 세세하게 표현하거나 명확하게 그려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느껴지는 정토마을은 특유의 향기와 끈끈한 사람의 냄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내 마음의 냄새는 무슨 냄새일까?’

정토마을에는 굶은 일 마다않고 자신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위해 기꺼이 팔을 걷어붙이고 이불도 깨끗하고 보송보송하게 만듭니다. 행여 입맛 잃어 옛 음식 그리울세라 정성껏 환자 음식 준비하고, 외롭게 느껴질 환자에게 혼자가 아님을 확인시키며 말동무 해주고, 부모자식 간에도 하기 힘든 야윈 팔다리를 주무릅니다. 정토마을은 이렇게 사람의 냄새가 끊이지 않고 넘치게 만드는 이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승에서의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앞서거나 뒤서거나 이승의 삶을 정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해 주는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했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깊이 생각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卍

좋은 인연들의 이야기

2009년 6월 1일~2009년 8월 31일



정토마을 후원가족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염불사 주지 법춘 스님께서 자제병원 건립기금 5천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무연자비를 베풀어주신 어른 큰스님의 고귀한 뜻 잘 받들어 자제병원 건립 불사에 정진하겠습니다.

♥ 새로 후원가족이 되신 분들

강연조 강태연 고남정 광상수 광연인 광태기 권미자 권 순 권택영 권필순 권혁미 길행숙 김경숙 김경자 김경희 김계숙 김광연 김규환 김금옥 김길수 김대연 김동훈 김말심 김명신 김문일 김문화 김미화 김병옥 김상국 김성숙 김수빈 김숙희 김양수 김영미 김영숙 김영자 김옥순 김옥주 김윤식 김점숙 김종국 김종배 김주란 김진숙 김진철 김창현 김춘호 김희자 남정남 남화자 도근호 류갑순 모영환 민홍금 민효린 박고은 박노옥 박동근 박동엽 박말식 박미연 박민심 박민정 박소영 박순임 박승환 박정순 박진섭 박차병 박창환 박혜란 박희숙 방순학 배금순 배동수 배순자 배지혜 백말순 백정근 백종진 서영숙 서은비 서정숙 서정우 서진태 선무선 성화정 손선애 손선희 신명숙 신봉정 신승탁 신태연 안상숙 안영화 안중석 안주희 양복혜 양영숙 양장식 엄명진 엄영일 오원철 원형미 원형옥 유선혜 유월순 유희정 윤상문 이경임 이경희 이동재 이돌이 이병수 이병조 이봉기 이상봉 이상영 이서영 이선자 이소영 이수경 이수일 이숙경 이숙자 이순이 이승아 이승준 이승훈 이열규 이영규 이영미 이영순 이옥자 이용철 이원하 이용경 이재수 이종명 이종현 이현호 임명찬 임선주 임영숙 임정도 장 경 장유정 장인옥 전옥란 정애순 정진우 정한택 정현자 정형순 정환철 조미애 조선용 조재억 조주연 조형식 주한철 차영숙 최금화 최명숙 최보영 최암우 최연숙 최연옥 최용경 최정숙 최준섭 하경영 하선영 한기연 한기준 한창리 허성민 허일욱 홍명숙 홍순동 홍승표 홍효정 황동호 황은경 황효숙 이정자2 이정화2 이진수3 임재규2 정영숙2 정희경3 조성주2 조인숙2 최미순2 최순이2 최홍순2 황정숙2 도림스님 법산스님 법춘스님 사공호문 성옥스님 이소진강 정민스님 종이스님 지공스님 지현스님 지인환스님

♥ 福돼지 회향하여 주신 분들

사랑 가득 담아 정성으로 福돼지 회향하여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소스님 노종환 다정 박숙자 이동식 이동훈 이종갑 오영주 여여심 전병희 장병철 최병식 최세진 함월사 익명 작은 몹에 사랑의 양식 가득 채워주시는 분을 위해 福돼지 분양은 항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사무국으로 전화 주십시오.

좋은 인연들의 이야기

2009년 6월 1일~2009년 8월 31일

♥물품으로 후원하여 주신 분들

강해경 강희갑 김강문 김금옥 김명아 김미영 김석중 김순임 김오선 김정옥 박배옥 박상신 박성순 박조병 백흥사 변은숙 서 웅 신병량 석남사 손정화 수자타 아미고 여옥순 윤영희 이금재 이영미 이영애 이용희 이장희 이정자 이정찬 이춘길 전동환 정귀남 정자현 정해성 정희경 조정희 최대옥 최양순 평등각 하얀꽃 홍미자 황동호 황윤의 덕신사 도견스님 도균스님 도수스님 도운스님 도용스님 명선스님 법춘스님 석운스님 석준스님 선현스님 수초스님 운수스님 인성스님 행운스님 행훈스님 혜능스님 김이사님 현강농원 김해도선스님 외 박재학님 가족 북위농장 이심전심 전국비구니회법통사 한마음요양원 한화L&C 28기호스피스교육생일동 29기 호스피스교육생 대구호스피스연합회

♥몸소 방문하여 사랑을 실천하신 분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사랑을 나눠주고 가신 봉사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해경 고수정 공봉관 금성애 김경숙 김경희 김기태 김명숙 김명숙 김민성 김민화 김순미 김아영 김애진 김영애 김원호 김윤현 김은비 김이순 김재형 김정귀 김주섭 김주성 김지영 김태원 김해리 김현정 김혜숙 김화숙 나영희 도근호 민지영 박고은 박기현 박남수 박동훈 박민심 박성희 박순천 박용옥 박정자 박종기 박종숙 박지은 백영미 백인주 백향자 서정우 서진수 송승현 송영순 송운환 수정화 신현구 심운영 양지호 양희정 어성대 여길성 원정선 유계선 유임주 유정기 유희정 윤미자 이가슬 이관희 이귀순 이다현 이동주 이명숙 이명옥 이병연 이병원 이상배 이수경 이숙경 이영희 이재원 이정미 이정우 이정찬 이주영 이주주 이창환 이철이 이효상 임병연 자성심 전순옥 전영진 전춘규 전태진 전화진 정민석 정영순 정영옥 정은숙 정형숙 조숙희 조아라 조인숙 조하연 조희천 주은숙 청정화 최성우 최세진 최영숙 최원경 최유나 최은실 최재진 허란 허영춘 황혜숙 이무량지 이심전심 도균스님 수인스님 지공스님 한화L&C R&B미용실 문사수법회 밀알정토회 수원불교청년회 29기호스피스교육생 청주산남고학사반 불국정토를가꾸는사람들 청주불자사랑봉사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법우회

8월 29차호스피스교육과 운문사호스피스교육기간내에 함께하여 주신 아미타호스피스 선배님들과 함께 애써주신 정토가족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신 선배님들의 명단이 많아 기재하지 못하고 인사로 대신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마을 환우들과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실 일반, 단체, 장기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사랑을 몸소 실천하실 자원봉사자께서는 오시기 전에 미리 사무국으로 접수하시며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정토마을 환우들께 필요한 물품

대행세탁기, 욕창용품

☎후원물품 계좌 : 농협 401120-51-017456 (재)정토사관자재회

☎후원 문의처 : 정토마을 사무국 043) 298-2258

좋은 인연들의 이야기



법화경 천일기도 동참자 명단자

2009년 6월

- 2백16만원 : 무등스님 • 1백8만원 : 서정숙 이완국천일 • 50만원 : 능관(이정희) • 32만4천원 : 최나영
- 21만6천원 : 김인수 박경희 임선주 장용렬 최윤철(박정미) 한서문 • 20만원 : 최보영
- 10만8천원 : 강연조 광창석 권미숙 길행숙 김경일 김경자 김경희 김규심 김규활 김길수 김동구 김상국 김상국 김송옥 김순규 김연희 김재은 김종진 김진철 김진호 김창현 김향화 김향화 김현아 남말현 류옥연 민영순 박동곤 박미연 박순옥 박정순 박종언 박혜란 배동문 배영순 배영자 배영혜 배영화 배태선 백경자 백승순 백정근 변은숙 복광순 성자현 송운환 신명숙 신병량 신태연 안상숙 안주희 안희찬 양복혜 양승진 양영숙 여둘금 오성찬 오원철 우명선 유월순 유주희 이경희 이덕남 이들이 이명순 이명채 이병수 이상기 이상선 이상순 이수경 이수일 이숙경 이숙자 이순이 이순자 이열규 이영규 이영미 이정호 이정화 이종갑 이종용 이희숙 임명찬 임종수 임춘미 장순희 장용열 장용정 정명희 정정혜 정정화 정해성 정현자 조명희 조원영 조인숙 주숙희 차영숙 최문자 최혜영 한영옥 한정애 허일옥 홍명숙 홍상주 황말년 황보희 황순동 황윤의 황정숙 분당정전행 금강스님 성옥스님 승인스님 자우스님 지현스님
- 10만원 : 박숙자 이정희1 최윤희(성문향) • 9만8천원 : 장인옥 • 6만원 : 김순식 허경남
- 5만4천원 : 강숙영 김미숙 남정남 류갑순 민영옥 박용숙 박창환 박창환 양경자 이수연 이용숙 임재규 정환철
- 5만원 : 서정숙 • 4만5천원 : 김숙희 박희숙 이승아
- 3만원 : 강옥순 김경숙 김문화 김양수 김옥주 김응운 김병옥 김정희 김종배 김희자 노성옥 박영교 배순자 배옥숙 백말순 서봉숙 서인선 송기동 송명희 신상현 안미희 안화자 이경임 이영미 장환숙 전양옥 정말점 정옥란 정환석 조현주 진말숙 최연옥 한숙자 • 1만6천원 : 최보영

2009년 7월

- 2백16만원 : 강철수 • 1백8만원 : 박도잡 박봉숙 보현사 유영임 이순남 서울 정진희 • 1백5만원 : 김동자
- 70만원 : 김형숙 • 54만원 : 보현사 • 50만원 : 김정숙 • 33만원 : 김말수
- 21만6천원 : 김향화 배태선 이정희 조선용 최나영 • 20만원 : 정성용 • 22만원 : 윤수정 • 20만원 : 김점숙
- 15만6천원 : 강옥희 • 11만원 : 공정연 김대원 명숙자 송순자 윤문자 장정순 정희자 허희자 전대도화
- 10만8천원 : 강연조 강정호 광창석 권필순 길행숙 김경일 김경자 김경희 김광섭 김규심 김규활 김길수 김동구 김말심 김명숙 김명애 김명화 김상국 김송옥 김순규 김연희 김윤식 김인수 김재은 김정숙 김종진 김진철 김진호 김창현 남말현 류옥연 민영순 박경희 박미연 박순옥 박윤자 박정순 박종언 박창환 박혜란 배동문 배영순 배영순 배영자 배영혜 배영화 백경자 백승순 백정근 변은숙 복광순 성자현 송영남 송운환 신명숙 신병량 신승탁 신태연 안상숙 안영화 안주희 안희찬 양복혜 양영숙 여둘금 오성찬 오원철 옥은주 옥은주 유월순 유주희 이경숙 이경희 이들이 이명순 이명채 이병수 이상기 이상선 이상순 이상희 이수경 이수일 이숙경 이숙자 이순이 이순자 이열규 이영규 이영미 이영숙 이정호 이종갑 이종용 이현호 이희숙 임명찬 임선주 임종수 임춘미 장순희 장용렬 장용열 장용정 정명희 정정혜 정정화 정해성 정현자 조권재 조명희 조원영 조인숙 주숙희 차영숙 최금화 최보영 최혜영 한서문 한정애 허일옥 홍명숙 홍상주 환희명 황금란 황말년 황보희 황순동 황윤의 황정숙 분당정전행 금강스님 성옥스님 승인스님 자우스님 지현스님

좋은 인연들의 이야기

- 10만원 : 강미숙 김성자 권윤칠 박숙자 양승진 이정희1 최신연 최윤희(성문향)
- 9만8천원 : 장인옥 • 9만원 : 김문화 • 6만원 : 김강문 김귀예 김기집 김화숙 문승태 이상득 최영희 황금식
- 5만4천원 : 강숙영 김미숙 남정남 류갑순 민영옥 박용숙 방순학 양경자 이수연 이용숙 임재규 임종숙 임평환 정충원 정환철 최귀옥 • 4만5천원 : 김숙희 박희숙 이승아
- 3만원 : 강옥순 김경숙 김동자 김양수 김옥주 김응운 김병옥 김정열 김정희 김종배 김희자 노성옥 박영교 배순자 배옥숙 백말순 서봉숙 서인선 송기동 신봉정 신상현 안미희 안화자 이경임 이상득 이영미 장환숙 전양옥 정말집 정환석 조현주 진말숙 최연옥 한숙자 허경남 황금식
- 1만원 : 박진섭(한성) • 8천원 : 양승진

2009년 8월

- 3백만원 : 송선래 • 1백8만원 : 김희자 박순자 우암사 백현진 최찬영 임태규영가
- 50만4천원 : 이우선 • 50만원 : 이윤옥 • 40만원 : 이정숙 • 32만4천원 : 복광순
- 21만6천원 : 김향화 박동곤 이정화 장용열 • 20만원 : 김현아 엄명진 이덕남
- 10만8천원 : 강연조 강정호 고남정 광창석 권필순 길행숙 김경일 김경자 김경희 김광섭 김규심 김규환 김길수 김동구 김말심 김명애 김명와 김상국 김송옥 김순규 김연희 김윤식 김재은 김점숙 김종진 김진철 김진호 김창현 김향화 남말현 류옥연 민영순 박경희 박미연 박순옥 박정순 박종언 박창환 박혜란 배동문 배영순 배영혜 배영화 배태선 백경자 백승순 백정근 변은숙 성자현 송영남 송운환 신명숙 신병량 신승탁 신태연 안상숙 안영화 안주희 안희찬 양복혜 양영숙 엄명진 여둘금 오성찬 오원칠 옥은주 유월순 유주희 이경희 이동재 이들이 이명순 이명채 이병수 이병조 이상기 이상선 이상순 이상희 이서영 이수경 이수일 이숙경 이숙자 이순이 이순자 이열규 이영규 이영미 이정호 이종갑 이종용 이현호 이희숙 임명찬 임선주 임종수 임춘미 장명자 장순희 장용렬 장유정 정정혜 정정화 정혜성 정현자 조권재 조명희 조선용 조원영 조인숙 주숙희 차영숙 최금화 최문자 최보영 최혜영 한기준 한정에 한창리 허일옥 홍명숙 홍상주 황해금 황말년 황보희 황순동 황윤의 황정숙 분당정전행 금강스님 성옥스님 승인스님 자우스님 지현스님
- 10만원 : 강원숙 권윤칠 박숙자 최윤희(성문향) 허경남 • 9만8천원 : 장인옥 • 8만원 : 이정희
- 6만원 : 김순식 김정숙(김병옥) 정옥란
- 5만4천원 : 강숙영 김명숙 김영미(일지) 남정남 도윤 류갑순 민영옥 박용숙 방순학 양경자 이수연 이용숙 임재규 임종숙 임평환 정충원 정형순 정환철 황효숙 이소진강
- 4만5천원 : 김숙희 박희숙 이승아 • 4만원 : 김정숙
- 3만원 : 강옥순 김강모 김경숙 김문화 김양수 김옥주 김응운 김경희 김종배 김희자 노성옥 박영교 배순자 배옥숙 백말순 서봉숙 서인선 송기동 신봉정 신상현 안미희 안화자 이경임 이영미 이진수 장수행 장환숙 전양옥 정말집 정환석 조현주 진말숙 최연옥 한숙자 허경남
- 1만6천원 : 김점숙 김현아 엄명진 • 1만원 : 강애현

좋은 인연들의 이야기



자제병원 건립기금 후원자 명단

2009년 6월

- 1백만원 : 김성환 김윤현 백경희 김해관음사 •30만원 : 김점옥 •20만원 : 구문전력(주)
- 15만원 : 이순조 •13만8천원 : 배경덕 •10만8천원 : 김정숙
- 10만원 : 강희갑 권소연 문명심 서영숙 최준석 최정숙 •5만원 : 김연자
- 3만원 : 김용선 안은현 이수영 임은자 •2만원 : 박채연 박태국 서승연 이근순 이영미 정춘수 정문희 황순동
- 1만원 : 강은주 금영숙 김들숙 김화숙 노선경 배금순 성정숙 정운갑 정형미 청운 다정 보현 마하야 밥순이 송광사 관음행 구거사 불국화 정토 도령 법성 •5천원 : 김정옥 김희주

2009년 7월

- 1백20만원 : 김순옥영가 •1백만원 : 김성환 •30만원 : 김윤현 •20만원 : 유수연 오영주 구문전력(주)
- 10만원 : 강희갑 곽태기 지윤스님 한기준 •5만원 : 김연자 이은경
- 3만원 : 김규수 김용선 안은현 이경세 이수영 이윤주 임은자
- 2만원 : 길계화 명진모 박태국 엄경해 우담화 이근순 이영미 정문희
- 1만원 : 강은주 관음행 구거사 금영숙 김규수 김들숙 김화숙 노선경 다정 도령 마하야 밥순이 배금순 보현 불국화 서승연 성정숙 정토 정운갑 정형미 청운 황순동
- 5천원 : 김정옥 김희주 유승범 유승엽 •2천원 : 정춘순

2009년 8월

- 5천만원 : 부산 염불사주지 범춘스님 •1백만원 : 김성환 김순일 임벽스님 문수혜은스님
- 50만원 : 구변스님 미산스님 정한옥 •20만원 : 구문전력(주) 김화숙 •10만원 : 강희갑 백현진 효일스님
- 5만원 : 김연자 김효경 •3만원 : 김용선 안은현 이경세 이수영 임은자 최창분 정행스님
- 2만원 : 구갑희 박태국 송광사 엄경해 이근순 이영미 장말녀 •1만원 : 강은주 관음행 구거사 길계화 김들숙 김화숙 노선경 다정 도령 마하야 밥순이 배금순 보현 불국화 성정숙 우담화 정토 정형미 청운
- 5천원 : 김정옥 김희주

완화의료병원! 서민들을 위한 종합의료복지타운!

자제병원 건립 불사

인간에게 더 이상 치유될 수 없는 질병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와 상실을 경험하게 하고, 그 고통과 슬픔은 환자의 삶의 질을 피폐화시키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앗아가 버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몸소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건립될 자제병원은 완화의료전문병원으로써, 또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평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종합의료시설로 맑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불교의료복지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건립계획

-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138-1(現 마하보디교육원 동일부지 내)
- 건축면적 : 지하 1층, 지상 4층(약 1,138평)
- 주요시설 : 일반재가병동, 승가요양병동, 중환자병동, 재활물리치료실 등
- 의료서비스 : 전문호스피스센터, 가정호스피스, 지역사회 서민들을 위한 외래진료, 재활치료, 가정방문간호 등

건립후원 안내

후원계좌 ☎ 농 협 401131-51-075952
국민은행 713701-01-140932 (예금주: 재단 정토사관자재회)

※ 동참해주신 건립기금은 소득세법 34조에 의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제병원, 마하보디교육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138-1
TEL 052)264-1007 FAX 052)264-0209

홈페이지 <http://jungtoh.com>
전자우편 maha@cpebud.com

☼ 병들어 고통 받는 우리 이웃들의 평화로운 안식처 ☼

정토마을

충북 청원군 미원면 구녀산 자락에 위치한 정토마을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품안과 같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병들어 고통 받고 이웃으로부터 소외당한 환우에게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독립형 호스피스 요양센터입니다.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환우에게는 성심을 다하는 간호와 돌봄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며 평화로운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며, 환우가족에게는 사별간호를 통해 사별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정토마을 운영

1. 대상 : 말기암 또는 이에 준하는 말기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우
2. 운영 : 촉탁의, 간호사,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24시간 전인적 돌봄 제공

• 정토마을 이용 안내

1. 상담 ▶ 전화, 방문
2. 입소심사 ▶ 정토마을 입소기준에 의거 심사
3. 입소통보 및 입소

※ 복잡한 절차 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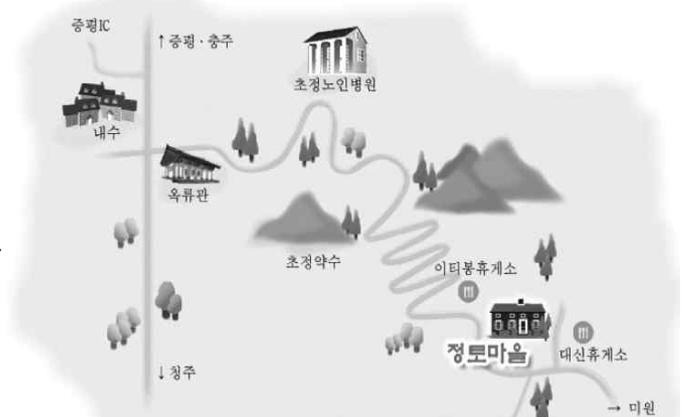
☼ 오시는 길

- 서울 방향에서

중부고속도로 ➡ 증평 I.C. ➡ 청주, 내수
 ➡ 초정약수 ➡ 미원 방향 ➡ 정토마을

- 부산 방향에서

경부고속도로 ➡ 김천 J.C. ➡ 중부내륙고속도로 ➡ 낙동 J.C.
 ➡ 청원, 상주간 고속도로 ➡ 보은 I.C. ➡ 청주, 미원 방향
 ➡ 초정, 내수 방향 ➡ 정토마을



정토마을 호스피스 • 363-871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 17-1 / T. 043)298-2258(대) / F. 043)298-1457
 홈페이지 <http://jungto.com/> 전자우편 hospice@cpebud.com

후원가족이 되어주세요!

♪... 사랑으로 주신 행복의 열매, 다시 나눔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밝은 행복으로 전달됩니다...♪

삶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고통 받는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해 주실 후원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정토마을을 소개하고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시면 호스피스 환우들의 마지막 삶을 함께하는 정토마을은 물론, 병들고 가난하여 고통 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어줄 시설의 건립과 운영에도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후원안내

전화 한 통이면 빠르고 간편하게 후원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 후원 방법 : 자동이체(CMS), 무통장입금, 지로입금, 물품후원, 복돼지 분양
- 후원 접수 : 전화, 홈페이지, 방문

농 협 401120-51-016794
국민은행 713701-01-001909

예금주 : 재단 정토사관자재회

※ 자동이체(CMS) 후원신청을 하시면 전화 한 통으로 신청, 변경, 해지가 가능하며 은행에 가시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후원금을 납부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재단 정토사관자재회 363-871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 17-1
Tel. 043)298-2258(代)/Fax. 043)298-1457
홈페이지 <http://jungtoh.com/> 전자우편 jungtoh@cpebud.com

〈알려드립니다〉

“이제 각종 기부금 내역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법인운영사무국에서는 2008년 소식지를 새롭게 개편하며 그동안 신지 못했던 각종 기부금 내역 및 운영내역을 2009년 10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이제 후원가족여러분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고 빠르게 본 공동체의 보다 투명하고 평등한 기부금 운영원칙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 공동체는 보다 평등하고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후원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늘 곁에서 많은 지지와 격려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나눔내역 열람 안내

1. 정토마을 홈페이지(<http://jungtoh.com>)에 접속
2. 열린마당 메뉴 - <사랑나눔내역서> 클릭
3. 각 내역별 열람

앞으로 정기회지 <보디사트바>에는 기부금 내역이 실리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내역 및 운영 내역 공고에 문의 사항 있으신 분들은 법인사무국(043-298-2258)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